

## 황석영 저, ‘삼포 가는 길’에 나타난 자유직접화법 번역양상에 관한 코퍼스 기반 연구\*

이 창 수  
(한국외국어대학교)

###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번역 문체 연구 관점에서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이란 단편 소설과 두 영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원작에서 사용된 자유직접화법의 번역 방식의 차이와 그 의미를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은 1973년 9월 신동아에 발표된 단편 소설로 객지에서 떠돌이 삶을 살던 하층민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의 모습을 실감나게 그려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장병호 2008: 63). 이 소설에는 공사판에서 밥값을 떼먹고 도망 나온 영달, 형무소에서 출소한 후 마찬가

---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FR-2016S1A5A2A01022824)

본 연구는 2017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지로 공사판을 떠돌던 정씨, 술집을 도망쳐 나온 백화 등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이들은 자신의 고향인 ‘삼포’를 향하는 정씨와 동행하게 된다. 정씨의 말에서 삼포는 산업화의 물결이 닿지 않은 자연 속의 안식처로 그려진다. 그러나 소설 말미에 기차 대합실에서 만난 한 노인을 통해 삼포가 관광지 개발로 인해 옛날의 모습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고향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황석영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인간상의 모순과 문제점을 소설화한 리얼리즘 문학의 대표적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황석영 작품의 리얼리즘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서술 문체에서 잘 드러난다. 황석영 소설의 언어는 일상어와 구어체 및 인물 외모나 배경 묘사에서의 섬세한 수식어가 특징적이다(정현숙 2002: 192-3). 이와 같은 황석영 소설의 문체는 『삼포 가는 길』에서도 잘 드러난다. 「삼포 가는 길」에는 인물의 행위에 대한 간결한 서술과 배경을 치밀히 묘사하는 문장이 빈번하다(정현숙 2002: 197). 특히 『삼포 가는 길』에는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 간의 직접 대화로 이뤄지는 자유직접화법이 많이 사용되어 리얼리즘을 극대화하고 있다(정현숙 2002: 205-6). 다음은 「삼포 가는 길」 결말 부분에 등장하는 한 노인과 정씨의 대화 장면이다.

- (1) 노인은 그렇잖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 (2) “말두 말우 거긴 지금 육지야. 바다에 방둑을 쌓아 놓구, 트럭이 수십 대씩 돌을 실어 나르다구.”
- (3) “뭇뻐요?”
- (4) “넌들 아나, 뭐 관광 호텔을 여러 채 짓는담서 복잡하기가 말할 수 없데.”
- (5)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 (6) “그대루가 뭐요. 맨 천지에 공사판 사람들에다 장까지 들어섰는 걸.”
- (7) “그럼 나룻배두 없어졌겠네요.”
- (8) “바다 위로 신작로가 났는데, 나룻배는 뭐에 쓰오. 허허 사람이 많아지니 번고지, 사람이 많아지면 하늘을 잇는 법이거든.”
- (9) 걱정하고 버르다가 찾아가는 고향이었으나, 정씨에게는 풍문마저 낯설었다.

(1)번과 (9)번의 서술문 사이에 직접 인용부호를 사용한 7개의 대화문이 이

어지는데 전달절(reporting clause)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전달절은 ‘...가 말했다’와 같이 대화문에 첨가되어 인용된 말의 화자를 설명하는 구문을 일컫는다. 전달절은 한국어에서는 형식적으로 화자성분, 보문, 인용조사, 전달동사 등으로 구성되는데(김홍수 2000: 115) 이와 같은 전달절이 없이 직접 대화문만 제시되는 경우를 자유직접화법이라고 한다(리치와 쇼트(Leech & Short) 2007: 258).

자유직접화법 대화문의 경우 번역에서도 같은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제 번역 작품을 살펴보면 번역과정에서 전달절을 삽입하여 직접화법으로 변환되는 등 형태가 변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삼포 가는 길』을 원작으로 하는 두 편의 영어 번역 작품을 대상으로 원문의 자유직접화법을 번역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와 같은 차이가 갖는 문체 및 문학적 의미를 논하고자 한다.

## 2. 소설의 인용방식과 번역

소설 속의 언어는 크게 서술자의 언어와 등장인물의 언어로 나뉜다. 서술자의 언어는 등장인물의 외양이나 기타 상황을 관찰자 관점에서 기술하는 순수 서술문(pure narrative: PN)을 의미한다. 그 외에 소설에는 등장인물의 말이나 생각을 간접적으로 기술하는 간접담화(indirect discourse: ID)와 직접 인용방식으로 표현하는 직접담화(direct discourse: DD)가 있다. 또한 ID와 DD를 섞은 형태로 인칭대명사와 시제는 서술자 관점을 따르지만 그 외의 어휘, 통사구조, 지시어 등에서는 직접담화의 특징을 따르는 자유간접담화(free indirect discourse: FID)가 있다(툴란(Toolan) 1996: 105-135). 여기에 덧붙여 직접 담화는 서술자의 전달절이 첨가된 일반적 DD와 전달절이 없이 화자의 말이나 생각만 표현하는 자유직접담화(free direct discourse: FDD)로 나뉜다. 따라서 소설에서 등장인물의 말과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총 ID, FID, DD, FDD 등 4가지 방식이 있으며 여기서 D를 ‘말’을 뜻하는 S(speech)와 ‘생각’을 의미하는 T(thought)로 대체하면 IS, FIS, DS, FDS, IT, FIT, DT, FDT 등 총 8가지 방식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직접화법에는 서술자의 존재를 표현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인용부호

와 화자의 말을 꾸며주는 전달절이다. 직접화법에서 전달절은 기본적으로 인용문의 화자를 지시하는 지시어(이름이나 인칭대명사)와 전달동사(reporting verb/verb of communication)로 구성된다. 예문 (10)에서는 밑줄 친 부분이 전달절로 Jem이 화자이고 asked가 전달동사이다. 이와 같은 전달절의 기본 틀에 덧붙여 화자의 몸짓 및 제스처를 묘사하거나 화자의 기분 및 태도를 설명하는 구문이 추가될 수 있다(톨란 2006: 699). 예문 (11)의 pleasantly란 부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 부사는 화자인 Jem이 말하는 태도가 상냥함을 나타낸다.

(10) “How old are you,” asked Jem, “four-and-a-half?” (Harper Lee, *To Kill a Mocking Bird*)

(11) “Hey yourself,” said Jem pleasantly. (Harper Lee, *To Kill a Mocking Bird*)

이와 같은 직접화법의 두 가지 특징, 즉 전달절이나 인용 부호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다를 제거한 형태가 자유직접화법이다(리치와 쇼트 2007: 258). 여기서 ‘자유’는 자유직접화법이 직접화법보다 서술자의 통제에서 좀 더 벗어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직접화법은 전달절을 생략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와 같은 형태의 대화문이 길게 이어질 경우 독자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자유직접화법을 즐겨 사용한 작가로는 헤밍웨이가 있는데, 그에 따른 독자의 혼란을 헤밍웨이가 의도했다는 해석이 있다. 이에 반하여 제임스 조이스는 인용부호를 생략하여 대화문과 서술문을 연결시키는 자유직접화법을 즐겨 사용하였다(리치와 쇼트 2007: 258-9). 또한 자유직접화법으로 이어지는 대화문은 대화나 상황이 급박하게 또는 서둘러 전개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리차와 쇼트 2007: 259; 톨란 2006: 701).

소설의 인용화법의 번역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유간접화법의 번역 문제를 다루고 있어 자유직접화법의 번역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버지니아 울프의 영어 소설 *To the Lighthouse*의 불어 번역본 3종간에 자유간접화법 번역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보소(Bosseaux 2007), 제임스 조이스의 영어 소설 *the Dead*의 1990년 폴란드 갈리시아어 번역본과 스페인어 번역본 간에 자유간접화법의 번역 양상을 비교

분석한 밀란-바렐라(Millán-Varela 2004), 독일 작가 뮐러(Muller)의 *Herztier*의 영역본인 *The Land of Green Plums*에서의 자유간접화법을 분석한 보아스-바이어(Boase-Beier 2014), 제임스 조이스의 *Ulysses*를 덴마크어로 번역한 보이젠(Boisen)의 1949년과 1970년도 번역판을 비교 분석한 리가드(Klitgård 2004) 등이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번역에서 원문의 자유간접화법의 형태가 변형되면서 원문에 나타나는 서술자의 미묘한 존재나 통제가 훼손되는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국내 연구는 주로 불어 소설의 한국어 번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까뮈의 『이방인』의 자유간접화법을 한국어 번역한 예를 분석한 전명수(2004)와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Madame Bovary*)의 불한 번역 3 종에서 자유간접화법의 번역을 연구한 박선희(2011) 등이 있다. 또한 이창수(2016)는 코퍼스 분석법을 사용하여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원문과 두 번역본 간의 화법 분포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인용화법과 관련된 번역 연구는 대부분 자유간접화법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자유간접화법이 서술자 관점의 간접화법과 화자 관점의 직접화법이 섞인 하이브리드 형태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복잡하고 관점이 애매하여 번역자가 개입할 여지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클링저(Klinger 2015)는 자유간접화법은 모호성(ambiguity)이 가장 높은 화법으로 번역가들이 이와 같은 모호성을 낮추기 위하여 명시적인 서술자 관점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모호성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자유직접화법에도 적용된다. 화자가 누구인지 또 어떤 태도로 말을 했는지를 서술자가 개입하여 설명하지 않는 자유직접화법의 특성상 번역가가 개입하여 이를 명시화할 가능성이 있다.

### 3. 연구 데이터 및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 분석 데이터로 선택한 원작 『삼포 가는 길』의 두 번역본은 각각 2008년 2012년에 출판되었는데 영어 제목은 *The Road to Sampo*로 동일하다. 2008년 번역본은 Asia 출판사가 출판한 한국 단편소설 번역집 *Reading Korea, 12 Contemporary Stories*에 수록되었으며 번역가는 김다희(Kim Da-Hee)

이다. 2012년 판의 번역가는 김우창(Kim U-Chang)이며 Anvil 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편의상 2008년 번역본은 TT2008, 2012년 번역본은 TT2012로 칭하기로 한다. 두 번역본의 일반적 텍스트 정보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두 번역본에 대한 기본 정보

| 번역본    | 총 단어 수 | 단어 유형 수 | STTR  | 문장 수 | 평균 문장 길이 |
|--------|--------|---------|-------|------|----------|
| TT2008 | 7,381  | 1,730   | 45.16 | 637  | 11.59    |
| TT2012 | 8,071  | 1,625   | 41.58 | 710  | 11.37    |

총 단어 수로 계산한 텍스트 길이에선 TT2012가 TT2008보다 조금 더 길다. STTR은 텍스트를 2,000단어 단위로 끊어서 각 단위별로 단어 유형 수를 총 단어 수로 나눠 평균을 낸 값으로 어휘 다양도의 척도로 사용되는데, TT2008이 TT201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는 TT2008이 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단어 수로 계산한 평균 문장 길이에선 TT2012가 상대적으로 더 짧은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

원작이 단편소설로 길이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분석은 원작에서 직접화법과 자유직접화법이 사용된 대화문을 찾아서 두 번역본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결과를 엑셀에 기록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거쳐 (1) 전체 인용문 수 (2) 직접화법 및 자유직접화법의 발생 건수 (3) 전달절에 사용된 동사의 유형 및 수식어 등을 분류하고 빈도를 계산하여 필요한 경우 카이제곱 통계 검증을 실시하였다.

직접화법 분석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의 전달절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분석한 후 비교 기준을 설정하였다. 영어 소설의 경우 인용부호로 표시된 직접인용문과 전달절은 쉼표로 분리되어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그림 1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구축한 현대 영어소설 22권으로 구성된 코퍼스에서 워드스미스(WordSmith)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aid란 전달동사 좌우 5단어 내에서 인용부호 “가 사용된 경우를 검색한 결과의 일부 예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인용문과 전달절은 쉼표로 연결되어 하나의 문장을 형성한다. 3,776, 3,777, 3,781번과 같이 전달절이 직접인용문 앞에 위치하더라도 두 부분은 쉼표로 분리되어 하나의 문장을 형성한다. 그 외에는 3,775번처럼 전달

절이 직접인용문 중간에 삽입되거나 뒤에 위치하는데 3,780이나 3,783번처럼 의문부호나 감탄부호가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역시 쉼표로 분리되어 있다. 의문부호나 감탄부호로 분리된 경우에도 뒤에 오는 전달절이 소문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영어 소설의 전달절 표기 예

|       |   |
|-------|---|
| 3,775 | him to get out of his office. "I'll go," the man said, "but I want to tell you that in all my |
| 3,776 | drink any more, I'm gonna be sick." The man said quietly, "If you get sick, I'll kill you."   |
| 3,777 | knows that. How could you tell?" The man said, "That's easy. For a moment, I thought I        |
| 3,778 | of his eyes flashing. "Now," the smaller man said. His companion lifted the body of Dan       |
| 3,779 | for payment will have to be made," the man said. I took out my money clip, slipped the        |
| 3,780 | I can do for you?" the bald sunburned man said. "I didn't know they were making them          |
| 3,781 | was a beautiful black stallion. The large man said, "This is the one." He put Wayne's body    |
| 3,782 | room. "Same rules as this morning," the man said. "Absolutely no questions." He took a        |
| 3,783 | to miss his plane, either. "No!" the big man said. "One more picture and you can have         |
| 3,784 | girlfriend baked it for them." "Okay," the man said, and turned to his next customer.         |
| 3,785 | the courtesy of being direct with me," the man said. "Tell me what you want, and what         |

이에 반하여 한국어 소설에선 직접인용문과 전달절은 마침표로 분리되어 별도의 문장을 구성한다. 그림 2는 세종코퍼스에서 소설텍스트만 분리하여 “말했다”는 전달동사 앞뒤로 인용부호 “가 붙은 예를 검색한 결과 화면이다. 39번은 “-가 말했다”는 전달절이 직접인용문 앞에 위치한 예이고, 46번은 뒤에 위치해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직접인용문과 전달절은 마침표로 분리되어 있다. 42번에선 직접인용문이 감탄부호로 끝나면서 뒤에 전달절이 붙어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직접인용문과 전달절이 별도 문장을 형성하는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그런데 47번을 보면 직접인용문에 “-하고”라는 연결어미가 붙어 전달동사와 연결되어 직접인용문과 전달절이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용부호 안의 직접인용문에는 마침표가 찍혀있다. 45번은 직접인용문에서 인용부호가 빠진 자유직접화법의 예인데 이 경우에만 직접인용절과 전달절이 쉼표로 분리되어 있다.

그림 2 한국어 소설의 전달절 표기 예

|    |   |
|----|---|
| 39 | 바랐다. 대담 대신 아이스크림을 뜨는 예리에게 <b>그가 말했다</b> . "내일 공항까지 바래다주고 싶어." "아니,            |
| 40 | 재 두 손으로 모서리를 쥐고 여자 쪽을 바라보던 <b>그가 말했다</b> . "빌어먹을 신발들..." 살아서는 그렇게             |
| 41 | 말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녹음하는 것을 보며 <b>그가 말했다</b> .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라고....."             |
| 42 | . "난 초보야. 예선전에서 우루루 떨어졌어!" <b>그가 말했다</b> . 그날밤 그는 암벽 끝까지 다다라 새로운              |
| 43 |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무릎을 놓으며 <b>그녀가 말했다</b> . "오늘 솔맛이 기막히겠는데." 작은녀은                 |
| 44 | 생기지 <b>않을까</b> ." 침대 고프머리에 걸터앉아서 <b>그녀가 말했다</b> .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
| 45 | 직장 다니고 있는걸요." 참 그렇면가요, 하고 <b>그녀가 말했다</b> . 나는 어둠침침한 부엌을 통해 공장 플루              |
| 46 | 내가 우선 신문지라도 발라놓을게요." <b>그녀가 말했다</b> . "아니예요. 그런 건 내일이라도 내가 와서                 |
| 47 | 차 감탄을 거듭했다. "우린 너무 <b>가난해</b> ." 하고 <b>그녀는 말했다</b> . "난 너무 불행해." 그녀는 물먹었다. 나와 |
| 48 | 증명이라도 하듯 말했다. 그가 신발을 신는 <b>그녀에게 말했다</b> . "그런 방법도 있었던 거야?" 예리는 간장이            |

이와 같은 예를 종합해보면 평서문 형태의 직접인용문인 경우 영어에선 쉼표를 사용하여 전달절과 분리시키는 반면 한국어에선 마침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표기 방식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소설에서는 표기상으로는 마침표로 분리되어 직접인용문과 전달절이 별도 문장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림 2의 47번 예에서 보듯이 직접인용문과 전달절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직접인용문 끝에 마침표를 두기 때문에 표기상으로는 직접인용문과 전달절이 별도의 문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직접화법을 구성하는 단일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소설에서 직접인용문에 사용된 마침표는 영어의 쉼표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여 분석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원문 및 두 번역문 간의 (자유)직접화법 정량 분석

먼저 원작의 직접화법 및 자유직접화법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원작에서는 총 197개의 직접인용문이 발견되었다. 이중 직접인용문의 화자를 밝혀주는 전달절이 첨가된 경우는 <표 2>에서 보듯이 58개이다. 즉, 58개를 제외한 139개는 전달절이 생략된 자유직접화법의 형태를 취한다. 이는 전체 직접인용문의 70.6%에 해당하는 수치로 원작에서 자유직접화법이 얼마나 널리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번역문에서는 전달절이 첨가된 형태가 늘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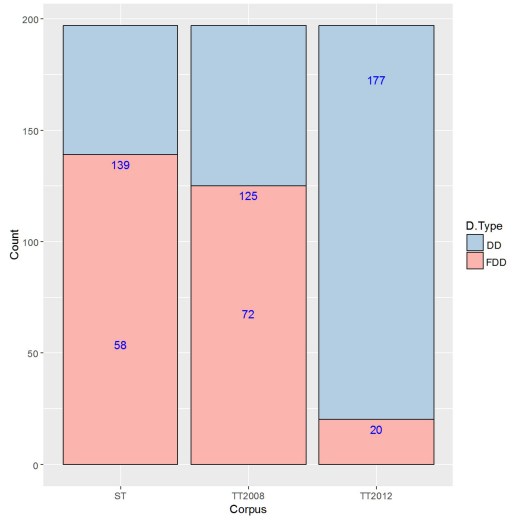


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 정도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다. TT2008에선 전달절이 첨가된 직접화법 수가 72개로 원문에 비하여 약간 늘어난 양상을 보인 반면, TT2012에서는 177개로 원문에 비하여 3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원문과 두 번역본에서의 (자유)직접화법 구성 비율

|        | ST          | TT2008      | TT2012      |
|--------|-------------|-------------|-------------|
| 직접화법   | 58 (29.4%)  | 72 (36.5%)  | 177 (89.8%) |
| 자유직접화법 | 139 (70.6%) | 125 (63.5%) | 20 (10.2%)  |

그림 3 원문과 두 번역본 간의 (자유)직접화법 구성 비율 그래프



이와 같은 차이는 그림 3의 그래프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원작에 비하여 TT2008은 직접화법의 비율이 조금 늘어났지만 여전히 자유직접화법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 자유직접화법을 많이 사용한 원작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TT2012는 반대로 직접화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등장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방법에서 원문과 크게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카이제곱검정 결과에서도 ST와 TT2008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X^2 = 2.2501$ ,  $df = 1$ ,  $p\text{-value} = 0.1336$ ), ST와 TT2012간의 차이는 크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X^2 = 149.32$ ,  $df = 1$ ,  $p\text{-value} < 2.2e-16$ ).

#### 4.2. 원문 및 두 번역문 간의 전달 동사 정량 분석

TT2012는 4.1.절에서 보았듯이 직접화법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전달절을 크게 늘렸을 뿐만 아니라 전달절에서 사용한 전달동사의 종류도 원문이나 TT2008에 비하여 훨씬 다양하다. <표 3>와 <표 4>를 보면 원문과 두 번역문의 직접화법에서 사용된 전달동사의 종류와 빈도수가 기록되어 있다. <표 3>에서 원문의 전달동사 유형수는 16개로 빈도수에선 ‘말했다’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물었다’가 8건, ‘대답했다’와 ‘중얼거렸다’가 각 3건이다.

<표 3> 원문에서 사용된 직접화법 전달 동사

| 전달동사      | ST | 전달동사       | ST |
|-----------|----|------------|----|
| 감탄했다      | 1  | 소리쳤다       | 1  |
| 권유했다      | 1  | 속삭였다       | 1  |
| 내쏘았다      | 1  | 우물거렸다      | 1  |
| 대답했다      | 3  | 재촉했다       | 1  |
| 말했다       | 31 | 제의했다       | 1  |
| 물었다       | 8  | 중얼거렸다      | 3  |
| 빈정거렸다     | 1  | 투덜거렸다      | 2  |
| 소곤거렸다     | 1  | 혼잣말로 (말했다) | 1  |
| 총 유형수: 16 |    |            |    |

<표 4>의 TT2008에서는 said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answered가 8건, asked가 7건이다. 원문의 ‘말했다’와 등가관계에 있는 said의 발생빈도가 줄어든 대신 원문에 없는 answered가 나타난 것은 ‘말했다’를 answered로 번역한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전달동사 유형수도 16에서 28로 증가하여 원문에 비하여 전달절에 사용되는 화행동사 다양성이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TT2012에서도 said, answered, asked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TT2008과 반대로 ‘말했다’의 등가어인 said의 수가 86개로 원문의 31개에 비하여 거의 3배 이상 늘어났으며, ‘물었다’에 해당하는 asked도 8에서 21개로 크게 증가했다. answered는 8건을 기록했다. 따라서 TT2012에서는 원문의 자유직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전환하면서 이 세 가지 전달동사를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유형수에는 16에서 39로 3배 이상 증가하여 원문에 비하여 등장인물이 수행하는 화행의 형태를 훨씬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다.

<표 4> 두 번역문에서 사용된 직접화법 전달 동사

| 전달동사         | TT 2008 | TT 2012 | 전달동사         | TT 2008 | TT 2012 |
|--------------|---------|---------|--------------|---------|---------|
| added        |         | 1       | piped in     | 1       |         |
| agreed       |         | 2       | placated     |         | 1       |
| answered     | 8       | 11      | pronounced   | 1       |         |
| asked        | 7       | 21      | proposed     |         | 1       |
| assured      |         | 1       | protested    |         | 1       |
| broke in     |         | 1       | remarked     | 1       |         |
| called       | 2       | 3       | reminisced   |         | 1       |
| chided       | 1       |         | replied      | 4       |         |
| complained   | 1       | 1       | responded    | 1       |         |
| complimented |         | 1       | retorted     | 2       | 4       |
| confessed    |         | 1       | said         | 18      | 86      |
| continued    |         | 9       | shouted      |         | 3       |
| exclaimed    | 1       | 2       | shouting     | 1       | 1       |
| explained    | 1       | 2       | sighed       | 1       |         |
| grumbled     | 3       | 1       | snapped back |         | 1       |
| informed     |         | 1       | spat out     |         | 1       |
| interjected  | 1       |         | spoke        | 1       | 3       |
| jeered       | 1       | 1       | stammered    | 1       |         |
| joked        |         | 2       | stuttered    |         | 1       |
| mumbled      | 1       | 2       | suggested    | 1       | 2       |
| muttered     | 2       | 1       | told         | 7       | 1       |
| nudged       | 1       |         | voiced       |         | 1       |
| objected     |         | 1       | whispered    | 2       | 1       |
| observed     |         | 1       | 총 유형수        | 28      | 39      |

### 4.3. TT2012의 전달 동사 삽입의 문체적 효과 분석

4.1과 4.2절의 정량 분석 결과를 보면 (자유)직접화법 사용에서 TT2012가 원문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차이가 실제로 어떤 문체적 효과를 발생시키는가를 분석해보자.

TT2012에서 전달동사와 더불어 전달동사의 유형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 원문의 자유직접화법에서 암시된 화자의 태도를 명시적으로 밝혀주는 효과가 있다. 가령, <표 4>에서 보듯이 TT2012에서 사용된 assured(안심시켜주었다/확인해주었다), chided(꾸짖었다), snapped back(쏘아 붙이듯 답했다),

protested(항의했다), placated(달래 주듯 말했다)와 같은 전달동사는 원문에서는 명시화되지 않은 화자의 태도와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

예문 (12)의 snapped back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12)

ST: “무슨 상관야, 내 발루 내가 가는데.”

TT2008: “What’s it to you? They’re my feet. I can take them anywhere I want.”

TT2012: “What’s it to you?” she snapped back, “I’m walking on my own feet.”

소설 중반쯤에 영달은 백화라는 술집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잘 만났는데 백화 아가씨, 찬샘에서 뺨소니치는 길이구만”이라며 말을 건넨다. 이에 대하여 백화는 예문 (12)와 같이 말대꾸한다. 원문은 자유직접화법을 사용하여 인용부호만 있는 직접인용문의 형태를 취한다. TT2008에서도 자유직접화법을 유지하여 원문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TT2012에선 직접인용문 사이에 she snapped back이란 전달절을 삽입하였다. 전달절을 사용하지 않은 ST나 TT2008의 경우 화자의 태도를 읽어내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글의 흐름상 백화의 말투는 통명스러움 정도의 감정을 담고 있어 보인다. TT2012에서는 번역가가 원문에 개입하여 화자의 태도를 snap back이란 전달동사를 통해 명시화하고 있다. 캠브리지 온라인 사전(dictionary.cambridge.org)에 따르면 snap이 발화동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to say something suddenly in an angry way(무엇을 갑자기 화를 내며 말하다)의 뜻을 갖는다. 이에 따르면 TT2012에선 백화가 벌컥 화를 내며 쏘아붙이듯 (또는 양갈지게) 말했다는 의미가 된다. 원문과 비교할 때 좀 더 격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타난다.

또 하나의 예를 보면 예문 (13)은 백화 때문에 길이 지체되자 영달이 고무신이라도 하나 사서 신어야겠다며 투덜거리는데 이에 대한 백화의 답변이다. 여기서도 원문은 자유직접화법을 통해서 백화의 말만 전달하고 있고 TT2008은 이와 같은 화법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TT2012는 retorted(날카롭게 반박했다)란 동사를 담은 전달절을 첨가했다. 정황상 retort란 전달동사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지만 백화가 뒤이어 “내가 고무신 살 돈이 어딴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보아 예문 (13)에서의 백화의 태도는 *retort*란 동사에서 나타나는 화난 감정보다는 체념에서 비롯된 자조적 어투로 말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번역가의 해석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예문 (12)와 (13)에서의 문제는 독자에 따라 달리 읽혀질 수 있는 화자의 태도를 번역가가 특정한 태도로 제한하였다는 점이다.

(13)

ST: “정 그러시면 두 분이서 먼저 가면 될 거 아녜요.”

TT2008: “Why don’t you two fine gentlemen run ahead, then?”

TT2012: “If that’s the way you feel,” she retorted, “why don’t you guys go ahead?”

이는 예문 (14)의 경우처럼 원문에 ‘내쏘았다’라고 화자의 태도를 명시화하는 전달절이 있고 이를 양 번역문에서 *retort*나 *said angrily*로 번역을 하는 것과 는 사뭇 다른 문제이다. 이 경우 번역문에서 화자의 발화 태도를 설명한 것은 원문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역문이 표현상에서 차이가 있다 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14)

ST: 백화가 걸음을 빨리하며 내쏘았다. “제따위들이 뭐라구 잡아가구 말 구야. 뜨내기 주제에.”

TT2008: She quickened her steps and retorted, “Who the hell are you two bums to talk about catching me?”

TT2012: She said angrily, “Who do you think you are, trying to catch somebody? You are only good-for-nothing bums.”

TT2012가 원문에 개입하여 화자의 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은 일 반적 전달 동사인 *said*(말했다)의 사용에서도 나타난다. *said*는 앞서 살펴본 *snap back*, *retort*와 달리 동사 자체에 특별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TT2012에서는 *said* 뒤에 다양한 부사어가 첨가되어 원문에서 명시하지 않은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다. <표 5>를 보면 TT2008은 원문과 같이 자유직접화법을 유지하여 전달절을 삽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TT2012는 *said*란 전달동사를

사용하여 전달절을 삽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사어를 첨가하여 화자의 태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중에는 문맥과 화자 발화 내용을 봐서 충분히 공감 가는 표현도 있지만, 번역가가 자의적으로 삽입한 것 같은 부분도 있다. 가령, 두 번째 줄의 naively(천진난만하게)같은 경우는 화자의 발화 내용에서 특별히 그렇다는 태도를 읽어낼 근거가 없어 보인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단순히 못 이룰 꿈을 희망하는 태도, 꿈꾸는 듯한 태도를 읽어낼 수도 있다. 맨 마지막 줄의 hopefully(희망적으로, 기대를 하며)란 표현에도 동의하지 않을 독자들이 있을 것이다. 삼포가 옛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를 바라는 태도로 읽을 수 있지만, 이미 그런 기대를 저버린 상태에서 의심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표 5〉 TT2012의 said 뒤 부사어 첨가 번역 예

| ST                   | TT2008   | TT2012   |
|----------------------|--|--|
| 정말 든든하시겠구만.”         | No wonder you're so confident.”                      | you must feel very secure,” Yong-dal said admiringly. (감탄하듯)                       |
| “나두 그런데나 들어갔으면 좋겠네.” | “I'd like to find a place like that”                 | “I wish I could go there,” said Yong-dal naively. (천진난만하게)                         |
| “집예요.”               | “Home.”  | “For home,” she said gruffly. (무뚝뚝하게)  |
| “우리두 의리가 있다구 그랬잖어.”  | “We told you, we're not that kind of men.”           | “Didn't we tell you that we are men of honor?” said Yong-dal defensively. (방어적으로)  |
| “진짜 화류계 연애로구만.”      | “That sounds about right for the pleasure quarters.” | “Just like the way it is in your world,” said Yong-dal scornfully. (냉소적으로)         |
| “삼포에서요?”             | “In Sampo?”  | “At Sampo? A bulldozer operator?” said Chong incredulously. (믿기지 않는다는 듯)           |
| “동네는 그대루 있을까요?”      | “Have the neighborhoods changed much?”               | “I suppose the village hasn't changed, though,” said Chong hopefully. (기대 섞인 목소리로) |

이와 같이 TT2012에서 원문 등장인물의 말에 함의된 화자의 태도를 특정한 의미로 명시화하는 것은 번역가의 해석이 옳고 그름을 떠나 원문의 독자와 번역문의 독자의 경험이 매우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문

(13)의 예로 돌아가 보면 원문의 저자는 화자의 태도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을 화자의 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지만 번역문에서는 서술자의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한다. 또한 원문의 독자는 독자마다 추론하는 의미가 약간씩 다를 수 있어 다양한 태도를 읽어낼 수 있다. 가령, 백화의 말에서 어떤 독자는 백화가 말만 통명스럽게 할 뿐 속으로는 우호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리치와 쇼트(2007: 132-133)는 자유직접화법을 설명하면서 소설 대화문의 중요성은 등장인물의 성격, 감정상태, 대화자 상호간의 태도 및 대화 상황을 서술자가 직접 기술하는 대신 등장인물간의 대화를 통해서 독자가 그와 같은 의미를 추론하도록 하는데 있다면서, 이와 같은 추론 과정은 소설 세계를 구성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소설 세계가 어떻게 구되는가는 소위 소설의 '마인드 스타일'(mind style) 또는 '관점(point of view)'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자유직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전환하는 번역가의 선택은 단순히 화자의 신분을 명시하여 혼동을 줄여주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특히 TT2012에서처럼 원문의 자유직접화법을 번역과정에서 직접화법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화자의 태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전달동사나 부사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경우 번역문 독자는 원문의 독자처럼 등장인물의 말에 근거한 추론을 통해서 소설 세계를 재구축해가는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번역가의 과도한 개입이란 문제와 함께 원문의 문학적 가치를 변형시켰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5. 맺는 말

본 논문에선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자유직접화법에 대한 두 영어 번역문의 번역 전략의 차이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양 번역문 모두 원문에 비하여 자유직접화법의 비중이 줄고 직접화법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대체적으로 TT2008은 자유직접화법을 중시한 원문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TT2012는 그런 구조를 허물고 직접화법의 비중을 크게 늘리는 선택을 하였다. 이와 함께 TT2012는 전달절에 화자의 태도나 감정을 나타내는 전달동사와 부사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원문의 독자가 추론을 통해 읽어

내는 태도를 명시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원문 독자는 추론을 통해 등장인물의 태도나 감정을 읽어내는 반면에 번역문 독자는 번역가가 명시화한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곧 독자 경험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번역과정에서 자유직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인용된 말의 화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으로 명시화 번역 전략의 한 예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화자의 신분을 밝혀주는 것은 독자의 혼란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가독성을 높히려는 시도로도 이해된다. 그런 점에서 TT2012에서 나타난 원문의 자유직접화법에 대한 번역가의 광범위한 개입은 읽기 쉬운 번역, 자연스런 번역을 중시하는 영어문학번역의 일반적 경향(베누티(Venuti) 1995)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베누티는 동시에 그와 같은 번역자 개입이 원문의 문학적 외래성이나 특징을 약화시킬 수 위험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학번역에서 원문의 화법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런 선택이 원문의 문학적 가치에 끼치는 영향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홍수 (2000) 「소설에서 대화 인용의 방식과 양상」,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어문학논총』 19: 113-142.
- 박선희 (2011) 「자유간접화법의 불한 번역에서 다음성 재현에 관한 연구」, 『번역학연구』 12(3): 55-82.
- 이창수 (2016) 「동일 원문 한영 소설 번역문 간 화법 번역 차이 연구」, 『번역학연구』 17(5): 233-249.
- 전명수 (2004) 「현대불어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번역」, 『아시아문화연구』 8: 213-233.
- 장병호 (2008) 「산업사회의 소외와 극복」, 『문학춘추』 64: 62-77.
- 정현숙 (2002) 「삼포가는 길의 문체 연구」, 『어문연구』 30(2): 191-212.
- Boase-Beier, Jean (2014) 'Translation and The Representation of Thought: The Case of Herta Müller', *Language and Literature* 23(3): 213-226.



- Bosseaux, Charlotte (2007) *How Does It Feel: Point Of View in Translation*, Amsterdam: Rodopi.
- Klinger, Susanne (2015) *Translation and Linguistic Hybridity: Constructing World-View*, London: Routledge.
- Klitgård, Ida (2004) 'Dual Voice and Dual Style: Translating Free Indirect Discourse in Ulysses', *Nordic Journal of English Studies* 3(3): 319-345.
- Leech, Geoffrey and Mick Short (2007) *Style in Fiction: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Harlow, UK: Pearson Education Ltd.
- Millán-Varela, Carmen (2004) 'Hearing Voices: James Joyce, Narrative Voice and Minority Translation', *Language and Literature* 13(1): 37-54.
- Toolan, Michael (1996) *Language in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Stylistics*, London: Routledge.
- Toolan, Michael (2006) 'Speech and Thought: Representation of', in Kieth Brown (ed.)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Amsterdam: Elsevier Science, 698-710.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Abstract]

**A Corpus-based analysis of translating free direct speech in  
'the Road to Sampo' by Hwang Suk-young.**

Lee, Chang-Soo

(Hankuk Univesity of Foreign Studies)

The paper examines how two English translations diverge in the translation of free direct speech in the Korean original short story, 'Sampo Kanun Kil (the Road to Sampo)'. As a form of speech representation, free direct speech reports a character's speech in his or her own words without a reporting clause which identifies the speaker and explains the manner of speech. Free direct speech is an critical feature of the Korean original, which contributes to the story's realism. The two English translations diverged markedly in the degree to which the translator intervened in the original and changed free direct speech to other forms of representation. The study investigates these difference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free and regular direct speech instances and the frequency of reporting verbs among the original and the two translations. This is followed by a discuss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massive shifts observed in one of the two translations from a literary perspective.

▶ Key Words: speech representation, free direct speech, literary translation,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ranslator's style

이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soolee@hanmail.net

관심분야: 코퍼스번역연구, 컴퓨터문체분석, 비평담화분석, 체계기능언어학

논문투고일: 2017년 4월 29일

심사완료일: 2017년 6월 9일

게재확정일: 2017년 6월 12일